

# 곡성 '일·휴식 동시에' 워케이션 사업 본격 추진

## '워크빌리지 인 곡성' 2년여동안 110개 기업 참여... "98% 재방문 의사"

곡성군이 자연속에서 직장의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vacation)' 사업을 확대한다.

곡성군은 지역형 워케이션 사업인 '워크빌리지 인(in) 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심청한옥마을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기업인들이 심청한옥마을에서 4~5일 정도 머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구축했으며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등을 마련해 제공했다.

또 신입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퇴근 후 개인 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제공했다. 직장인들은 자연속에서 심청한옥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 관광지 등을 여행했다.

워케이션 사업 첫째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42개 기업 187명, 지난 4월 27일부터 6월까지 23개 기업 140여명 등 최근까지 110개의 기업이 심청한옥마을에서 실적을 쌓았다.

또 지난 4월 27일부터 6월까지 23개 기업의 임직원 140여명이 심청한

옥마을을 방문해 직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참여 기업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곡성군은 하반기부터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전문 직군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한 프로그램인 '워크빌리지 인(in) 곡성'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올래 공모사업인 '워케이션 분야'에 선정되면 심청한옥마을의 유희시설 등을 보수하고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옛 삼기중학교 부지에 가족체류형 농촌유학과 워케이션 청년거주 시설을 조성해 단기간 머무르는 형태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곡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워케이션에 참여했던 직장인들은 콘크리트를 벗어나 자연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니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평가했다"며 "대기업이 곡성에 머물며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황상민 기자

# 광양,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정인화 시장 "정의감, 당당함, 성실한 공직생활" 당부



광양시는 2회차에 걸쳐 신규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자세를 확립하고 이론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슬기로운 공

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 ▲'스스로 찾는 공직가치' ▲'공공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보이는 라디오' ▲'시장님과 신규 공직자간 소통하는 '시장님과 토크콘서트' 등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팀워크

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장님과 토크 콘서트'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신규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신조어 퀴즈, 밸런스 게임 등 세대 간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자리에 있는 신규 직원들은 앞으로 광양시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며 "우리 MZ세대 공무원들이 정의감과 패기, 당당함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통하는 '시장님과 토크콘서트' 등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팀워크

/광양=조순익 기자

# 순천정원박람회 물놀이장 '오천 워터아일랜드' 개장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오천 워터아일랜드(이하 워터아일랜드)' 개장을 알렸다.

워터아일랜드는 오천그린광장 내 연면적 10,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풀장,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여름 맞춤형 물놀이 콘텐츠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조직위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오홍수 시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이항기 의원이 참석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당초 7월 초에 개장하려고 준비했던 워터아일랜드를 아이들을 위해 일찍이 선보이게 됐다"며 "지형 안정화와 그늘막 확대 설치로 시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시민들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모두가 큰 힘을 쏟아주셨다.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순천을 따라갈 정도로, 순천은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응원에 보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내겠다"고 전했다.

워터아일랜드는 6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 시설점검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 "정원은 전략적 개념 미래도시 바꿀 산림청 더 커져야"

## 노관규 순천시장, 제 17회 산림연찬회서 주제발표

### 103개 시군 참여...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처 협력 필요"

산림청이 주최한 제17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통해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이끌어 갈 핵심 부서로 산림청을 꼽으며 산림청의 위상 승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지난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연찬회에서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50년 압축 성장 속에서 누적된 부작용들을 바꾸기에, 대도시는 몸집이 너무 크고 중소도시는 대도시 배기기에만 급급하다"라면서 현재 대한

민국 도시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15년 전, 오랜 고심 끝에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이를 받아 들여준 곳이 산림청이었다. 지금 순천은 수도 서울을 포함해 정원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도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면서 산림청의 해안에 감사사를 표했다.

노 시장은 "두 번의 박람회를 거치며 현재 산림청 위상으로는 전략적인 정원 문제를 풀어나고 녹색도시로 바꾸어 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갈 산림청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부처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산림청의 지혜



와 지자체 간의 연대와 응원을 제안했다.

올해로 17회차를 맞은 산림연찬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 산림부서장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산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어 운 행사다.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연찬회에는 103개 시군에서 약 65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보성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 26일부터 시작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보성군은 오는 26일부터 '2023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을 추진하고 주요 영농 정보를 카드 뉴스 및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영농교육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영농 교육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성을 폐상리를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 10개 마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주요 병충해

방제 및 재배 기술과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등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15개의 카드 뉴스(이미지뉴스)와 6개의 농업기술 동영상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노내기 이후 논 관리 및 병충해 방제, ▲태풍 대비 농업인 실천 사항, ▲고추 바이러스병 진단 및 방제, ▲사과·배나무 약제 살

포 요령, ▲화상병과 썴병 구분 방법 등의 당면 영농 기술 실천 사항을 비롯해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토마토 병해충 및 생리장해 등의 시기별 핵심 정보로 이뤄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영농 교육은 주요 재배 작목들의 교육과 보성군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 순천시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6월 12일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

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켓마켓

# 구례군 로켓마켓

구례군 로켓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매 문의 ☎ 061)780-8294